현불 논단

붓다의 간병철학



방영준
성신여대 명예교수

코로나19 3차 대유행 시작돼
사회 구성원 피로감 증가 중

〈마하왁가〉 간병인 자질 명시
이득 얻으려는 마음 갖지 않고
환자에 佛法 전해 기쁘게 해야

붓다의 간병철학 핵심은 '자비'
코로나 극복, 상생 윤리관 바탕

이를 어쩌랴. 코로나19가 지구촌에 다시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 우리나라도 하루 500명 수준으로 확진자가 늘고 있다. 이 글이 지면에 실릴 때는 어떤 상황이 될까 가늠이 되지 않는다. 코로나19는 이제 개인적 차원의 질병을 넘어 사회 전체를 감염시키고 있다. 자영업자의 고통, 청년 실업, 소외계층의 확대 등 사회구조의 불평등 구조가 확대되고 있고 사회구성원의 피로감 증가와 집단 우울증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제 사회 구성원 개개인은 코로나에 감염되지 않도록 자신을 지키면서, 동시에 코로나로 휘청거리는 공동체를 치유하는 '간병인'이 되어야 할 위치에 서 있다.

불교의 근본 뿌리인 빠알리 경전에 붓다의 간병 철학이 있다. 〈마하왁가 8편 26:8〉에 훌륭한 간병인의 다섯 가지 자질이 제시되고 있다. 첫째, 약을 구할 능력이 있어야 한다, 둘째, 환자에게 무엇이 이로운지 무엇이 해로운지를 알아야 한다. 그래서 환자에게 이로운 것은 가져오고 해로운 것은 버린다.

셋째, 이득을 얻으려는 생각없이 다정한 마음을 가지고 간호하여야 한다. 넷째, 똥 · 오줌 · 땀 · 구토물 등을 더럽다고 생각지 말아야 한다. 다섯째, 환자에게 때때로 가르침을 설하여 기쁘게 하여야 한다.

위의 내용을 보면 붓다가 매우 현실적이고 과학적인 간병의 자질을 요구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한다. 더구나 간병인의 첫째 자질로 약을 구할 능력을 든 것은 참으로 놀랍다. 근래 코로나 백신약과 치료약이 곧 나온다니 빛이 보이기도 한다. 붓다가 제시한 간병인의 자질은 지혜와 자비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나아가 붓다는 마음의 치유까지도 간병에 두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우리 사회도 병이 깊어 간병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제 간병의 대상이 '개인'에서 '사회'로 확대로 되고 있다. 붓다의 간병철학을 사회 공동체에 적용해 보면 우리에게 많은 화두를 던진다. 사회 치유를 위한 약은 어떻게 구할 것인가? 이로운 것은 어떻게 얻고 해로운 것은 어떻게 제거하는가? 치유의 자비 실천을 위한 구체적 방안은 무엇인가?

붓다의 간병철학의 핵심은 한 마디로 자비 공동체를 구현하는 것이리라. 붓다의 연기법과 무아사상에서 자비사상이 자연스럽게 우러난다. 자비는 우리 자신의 삶에 느끼는 사랑을 다른 형태의 모든 존재에 확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공동체에서 제일 중요한 키워드는 '상생'이다. 상생의 형태나 방식은 다양할지라도 상생적 삶의 양식은 공동체의 근원이다. 공동체의 특성으로 호혜성이나 상호부조를 제일 중요한 요소로 거론하는 것도 이에 기인하는 것이다. 여기에 자비 공동체 실현의 첫 과제로 등장하는 것이 상생적 윤리관의 정립이다.

코로나19를 극복하는 근원적인 '방역 체계'는 상생적 윤리관에 바탕을 두는 것일 것이다. 붓다는 간병철학의 마지막 강조점으로 "환자에게 때때로 가르침을 전하여 기쁘게 하여야 한다"고 했다. 이것은 바로 붓다의 지혜를 알리고 자비 정신을 실천하는 것이리라. 글을 마무리하면서 병든 비구의 몸을 씻기시는 붓다의 모습이 선하다. 빠알리 경전 〈마하왁가 8편 26:1-4〉의 내용을 축약해 본다.

"비구야, 너는 무슨 병에 걸렸느냐?" "부처님, 저는 이질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너를 간호하는 사람이 있느냐?" "없습니다, 부처님"

"아난다, 가서 물을 가져 오너라. 이 비구를 목욕시켜야겠구나." "예, 부처님."

社 說

문화재구역입장료 면제 확대에 부쳐

문화재 보유 사찰의 문화재구역입장료 면제 대상자가 대폭 확대된다는 소식이다. 조계종 문화재보유사찰위원회는 '문화재구역입장료' 면제 기준을 새롭게 조정 · 확정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이날 결정에 따라 다양한 계층에서 입장료 면제 혜택을 받게 됐다. 국가유공자의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총 18개 분류의 국가유공자와 부인으로 대상이 확대됐으며, 보훈보상대상자 · 5.18민주유공자 · 특수임무유공자 · 의사상자 · 민주화운동 관련자도 무료로 입장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 임산부(보호자 1인 포함), 다자녀 가구 부모 등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에 대해서도 입장료 면제가 이뤄진다.

문화재구역입장료는 문화재보호법에 근거해 징수가 이뤄지고 있다. 이는 민족 문화유산인 불교 성보문화재를 보존 · 관리하기 위한 최소한의 비용이다. 국립공원 내에 있는 국보 41점과 보물 160점은 모두 사찰 소유로 이를 관리하는 데 들어가는 재화도 무시를 못할 수준이다.

애초 국립 · 도립공원의 경우 국가가 소유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지정 · 운영한 것으로 시작됐다. 그럼에도 조계종에서 면제 대상을 확대해 다양한 계층에 무료로 개방하겠다는 것은 국민에게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 불교를 알리고 우리 문화의 중요성을 이해시키겠다는 의지다. 이는 분명 박수를 보낼 일이다.

이와 더불어 국가도 이 같은 불교계의 노력에 맞는 예산 지원을 바란다. 2018년 기준 관리 예산만 600억 원인 서울 4대궁 · 종묘와 세계문화유산과 국보 · 보물을 압도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불교계와 차이가 너무 심하기 때문이다.

장애인포교, 새 전략 필요하다

최근 롯데마트가 시각장애인 안내견의 출입을 거부하면서 사회적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법적으로 '장애인보조견'의 출입을 보장하고 있는 것은 시각장애인들에게 안내견은 곧 눈의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이번 사태가 장애인에 대한 이해 · 인식 부족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슬프지만 불교계는 롯데마트보다 더한 수준이라는 평가가 많다. 장애인단체를 이끄는 관계자들은 이번 사태를 언급하며 "사찰에서 안내견이 쫓겨나는 일은 비일비재하다"고 지적했다. 그만큼 장애인에 대한 인식수준이 여전히 낮다는 것.

전국 곳곳에서 장애인불자회가 창립하고 활동을 시작한지도 30년이 훌쩍 지났다. 그럼에도 여전히 인식은 저조하고 장애인 포교는 제자리걸음이다. 장애인단체들의 활동도 쇠퇴 수순을 밟고 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인식부족, 그리고 무관심이다.

일반 불자들이 감소하듯 장애인불자들도 감소하고 있다. 속도는 훨씬 빠르다. 젊은 장애인 수가 적어지는 가운데, 기독교계는 적극적인 선교전략을 펼치고 있다. 전국 맹학교 13곳 가운데 상당수가 기독교계 재단이 운영하고 있다. 학교에서부터 알게모르게 기독교를 접한 장애인들은 학교를 졸업하면 자연히 인근 교회 및 성당에서 운영하는 '농아부'에서 활동한다. 청각장애인과 지체장애인들의 사정 또한 크게 다르지 않다. 새로운 포교전략이 필요한 이유다.

기존 장애인불자들의 신행지원을 넘어, 새로운 장애불자들을 만나기 위한 범불교 차원의 노력이 절실하다. 그 시작점이 장애인을 향한 관심과 이해임은 당연하다.



지인 스님의
병상포교일기

마지막 달력 한 장

어느덧 올해도 달력 한 장만을 남겨놓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정신없이 1년을 어떻게 지냈는지도 모르게 한 해를 보내게 되는 것 같다. 1.5단계에서 2단계로, 그리고 다시 2.5단계로 위험수위가 격상되면서 병원에 입원한 환자들과 그 가족들의 생이별의 고통은 이산가족의 상황을 방불케 한다.

일산병원 호스피스병동에 있다가 지금 현재 다른 호스피스 병원으로 옮겨 임종의 여정에 다다른 동생 때문에 가슴 졸이는 한 거사가 법당을 찾았다. 그 곳 병원은 일산병원보다 출입의 제한이 훨씬 엄격하여 가족들이 전혀 병문안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현재 어머님이 동생을 간병하고 있는데 어머니를 통해 전화로 동생의 상태와 어머니의 안부를 듣고 있다고 하였다.

"거사님, 그래 얼마나 힘드세요"하고 위로말씀을 드리자 거사는 눈에 눈물이 핑 돌더니 급기야 굵은 눈물방울을 뚝뚝 떨군다. "사는 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동생을 제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것도 답답하지만, 연로하신 어머니는 오도가도 못하고 병원에 붙잡혀 계시니 죽어가는 아들 보는 그 마음이 어떻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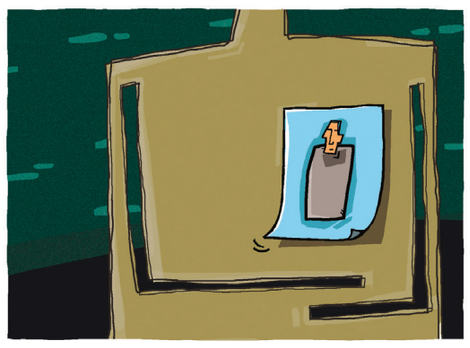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습니까? 그걸 생각하면 제가 미칠 것만 같습니다." 거사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거의 울부짖음으로 변하고 있었다.

뭐라고 위로를 해야할지 나도 가슴이 먹먹해졌다. "어머니를 나오시게 하시면 어떨까요. 아들의 임종을 지켜보면서 너무 힘드실 것 같은데…." 거사는 눈물을 훔치며 대답했다. "나오면 다시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그냥 계시는 거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거사의 마음이 오죽 답답할까 싶었다.

일산병원에서 잠시 뵈었던 노보살의 모습이 떠올랐다. 처음엔 불자라는 것도 말하지 않으려고 하다가 내가 다가가자 수줍게 불자임을 밝혔던 분이셨다. 아들이 암이라는 사실이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 수 없다고 말하였다. 아들의 병이 자신의 업이고 죄인 것만 같다고 하였다. 친척에게도 동네사람들에게도 이 사실을 숨기고만 싶다고 말하는 보살의 아픔을 어루만져줄 시간도 없이 환자는 다음날 다른 병원으로 옮겨 가게 되었다.

"동생이 가고 나면 스님께 연락드리겠습니다." 거사는 수그리고 있던 고개를 들어 인사를 하며 자리에서 일어섰다.

"네, 저도 마지막 배웅의 길에는 꼭 함께하며 동생분도 어머님도 위로해 드리는 시간 되도록 하겠습니다." 돌아서는 거사의 뒷모습에 올해 12월 달력이 눈에 들어왔다. 앙상한 스프링에 매달려 있는 모양이 마지막 잎새와 같이 가냘프게 흔들리고 있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지도법사 · 일산 기쁨정사 주지〉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1994년 10월15일 창간
발행인 : 혜도 대표이사 : 김재진 편집국장 : 김주일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10-5640-8883
경 남 지 사 : 010-3860-7008
광주전남지사 : 010-2629-1508
대 구 지 사 : 010-2813-8008
영 주 지 국 : 010-9373-3778
전 북 지 사 : 010-8642-7733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구독료 : 1개월 5천원
등록일:2007년 3월 9일 · 등록번호:서울다 07641(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연등시공전문기업 대광불교
연등자동승강장치 최초개발시공업체
대광불교는 연등전문 기업입니다. 대광불교만의 독특한 디자인과 숙련된 노하우로 각종 연등을 제작 보급하고 있습니다.
항상 등불을 밝히는 마음가짐으로 등 제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연화등
공단등
만월등
연등 자동 승강장치
연등 시공
대광불교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매자리길 113 | E-mail : hskhsg@naver.com | 010-9446-1862 | 010-2788-7270 | 031)768-7270 | 031)768-7271